

빨배 물고... 소달구지 타고... 낙지잡고

설렌다, 남도 체험여행

전남도가 다양한 테마체험여행 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적극 나서면서 전남을 찾는 체험여행객이 붓물을 이루고 있다. 전국의 여행사를 상대로 '참여와 체험'을 위주로 한 여행상품 공모에 나서는가 하면 연중 치러지는 체험행사를 정비하는 등 외지 관광객을 유치하려는 전남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다.

전남도 '명품 봄 여행상품' 관광객 유혹

전남도는 다음달부터 '남도명품 봄 여행상품'을 가동, 관광객을 불러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 올해 전국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마련한 ▲황포돛배·울돌목 거북배·운림산방 토요경매 등 남도 문화체험 여행 ▲담양·장흥·산안·완도 등 슬로시티 체험 여행 ▲신안 가거도를 비롯한 섬 방문 여행 등 명품 여행상품들은 '참여와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남도는 이와 함께 3월부터 10월까지 진도군 우수영 관광지 및 울돌목 일원에서 매주 '2010 명랑역사 체험마당'을 시작한다. 체험마당에는 우수영 수문장 교대의식, 전통대장간, 땃기굿과 남도 민요 등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포함돼 관광객들의 발길을 붙들 계획이다.

지금껏 운영중인 각종 체험프로

그램도 정비된다. 전남도는 39개 녹색농촌체험마을과 29개 어촌체험마을, 22개 농촌 전통 테마마을에서 산·바다, 논과 밭 등 자연 환경과 풍습을 살린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는 한편, 프로그램 개선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올해 예정된 프로그램은 주말을 활용한 계절체험, 지렁이생태체험, 빨배타기, 풍나물 기르기, 표고 따기 체험, 청국장 만들기, 고구마 캐기, 지역별 역사 문화유산 체험 등이 포함돼 있다.

농림부가 지정한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 잠룡 우산마을에서는 지렁이 생태체험·손두부 만들기, 구례 상사마을은 승마체험과 계절별 농촌체험이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고, 진도 소포마을에서는 낙지잡이 체험프로그램이 도시에서 찾아온 손님들을 설레게 하고 있

다.

진도·함평·신안 등 12개 시·군의 29개 어촌체험마을은 나뭇배 낚시와 바다 선상낚시, 조개잡이 및 갯벌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 올해도 관광객들을 불러들일 작정이다.

곡성하늘마을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구석구석 일구놓은 '다랭이논'이 색다른 경치를 만들어내고 진도 운림예술촌마을의 장승길걷기와 소달구지타기 등도 가족들과 함께하는 체험여행으로 손색없다. 빨배타기(여수 갯벌노을마을), 불낙지잡기(고흥 벌나로마을), 해초팩체험과 조릿대차만들기(방골해남마을), 낙막산만들기와 염전체험(신안 파과마을), 철새탐조 및 곤충체험(순천 용출다리기마을) 등은 아이와 주부들에게 인기가 높다.

하지만, 모든 체험관광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연중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반짝 흥보'로 끝나는 경우도 많은 데다, 확실적인 프로그램이 되풀이되면서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등 지역 내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봄 내음 솔~솔 19일, 날씨가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는 우수(雨水)를 맞아 광주시 광산구 평동 광주농촌지도소 육목장에서 직원들이 광주시 5개 구청 화단에 심을 팬지와 금잔화 패랭이 꽃 등을 살펴보고 있다. 온실 속에서 노랑과 파란 색으로 활짝 핀 꽃들이 봄 냄새를 풍기는 듯하다. /위탁기자 jw@

러 연수 광주교대생 집단폭행 사망

기숙사 들어가다 참변

러시아에 어학연수를 간 광주교육대 학생이 러시아 청년들의 집단폭행으로 사망했다. <관련기사 3면>

19일 광주교대와 러시아 주이르쿠츠크 총영사관 등은 "광주교대에 재학중인 3학년 강모(22)군이 지난 15일 이르쿠츠크 바르나울에서 청년 3명에게 흉기 등으로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18일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강군은 같은 대학 여학생과 슈퍼마켓에 간 뒤 숙소인 알타이 국립사범대 기숙사로 되돌아가던 중 흉기 등으로 공격당했으며, 동행했던 여학생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교대 박남기 총장과 이동우 기획연구처장은 18일 강씨의 부모와 함께 러시아로 출국해 사건 수습에 나섰다.

광주교대 관계자는 "강군이 폭행을 당한 후 지난 16일 새벽(한국시간) 연수에 참가한 대표 학생이 이번 연수 당당 교직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 사건과 관련, 러시아 중앙 및 지방 정부에 한국인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

■ 광주교대생 사망 장소



구했다고 외교통상부가 19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러시아 대사관을 통해 러시아 중앙정부 관할 당국에 이

번 사건의 심각성과 양국관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러시아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주이르쿠츠크총영사관을 비롯한 러시아 내 다른 우리 공관을 통해서도 각급 지방 치안 당국이 양국 간 지역 교류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을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프간 파병동의안 국방위 통과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 19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 본회의로 넘겨졌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아프가니스탄 방재건설(PRT)을 경호·경비하기 위한 국군부대의 파병 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 이를 처리했다.

회의에서는 정부의 파병동의안과 함께 파병기간을 '2년6개월'에서 '1년6개월'로 수정한 동의안 등 2개의 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으며, 먼저 표결에 부쳐진 수정 동의안은 부결됐다.

이로써 2010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2년6개월간 아프간 파르완주에서 PRT 인원의 경호·경비 업무를 담당할 350명 이내 병력의 파병 준비작업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파병동의안은 25~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올 수능 일주일 늦춰 11월 18일 실시

G20 정상회의와 겹쳐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서울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일정과 겹친 탓에 일주일 연기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9일 "당초 올해 수능시험을 11월11일 치를 예정이었지만 G20 정상회의 일정이 11~12

일로 정해져 수능과 겹침에 따라 관계관과 조율을 거쳐 일주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G20 정상회의 기간에 각종 정상들의 차량 이동에 맞춰 교통 통제와 대대적인 경찰력 투입 등이 이뤄지면서 자칫 수능시험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이에 시험일을 늦추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능시험은 11월 18일,

성적통지는 당초 예정인 8일보다 3일 늦춰진 12월 11일 시행된다.

수능시험 일정이 밀림에 따라 대학별 전형일정도 일부 조정된다. 교과부는 변경된 대입전형 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화교육협의회를 통해 다음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2010. 3. 1 (일) 09:30 - 16:00 (등록금 5000원)

● 1. 광주북도종합경기장 ~ 남천교
● 2. 북포스 ~ 북포스, 10Am, 5Am

문의: 062-225-2541

학고 설립 56주년 (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키를 더 큰 새창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망!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